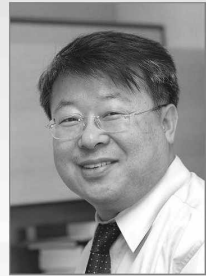


이 달의 과 소개

Safety Korea 실현하는 제품안전정책국을 소개합니다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02-509-7204

안전코리어를 실현하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송재빈입니다. 이번에 '기술표준' 7월호 지면을 통해 제품안전정책국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발행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술표준원(구 국립공업시험원)을 시작으로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중소기업청에서 10여년간 근무를 하였고, 2007년 12월부터 제품안전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기술표준원과는 남다른 감회와 인연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품안전정책국(이하, 안전국)은 4과 1팀 46명(안전품질정책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계량측정제도과, 제품안전조사팀)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대한민국 제품안전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 말미암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비용과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진국에서는 어린이 장난감사고 등 제품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유해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찍부터 중진 관리분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제품안전관리 전담조직인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07년대비 70% 증액

(63백만불 →107백만불)하이 발표한 것은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각종 제품, 원재료, 식품, 청피물 등 유통제품의 정확한 거래 및 가격계산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계량기 관리업무도 안전국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울, 전기요금 계산을 위한 전력량계, 아파트 난방비 계산을 위한 열량계, 수도미터 등 계량기의 정밀도 관리업무는 일상생활 속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사용해온磅, 근, 돈 등 국제단위에 맞지 않는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정확한 계량문화 정착을 위한 법정계량단위 사용홍보는 소비자, 기업, 단체 등 각계각층의 동참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안전국은 국민 생활안전과 상거래전서 확립에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애로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취약기술 지원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R&D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규제나 단속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며 안전한 제품공급에 기여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09년도 안전국의 중점 추진업무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수준으로 제품안전관리의 대폭 강화, 기업이 공감하는 제품안전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예방적인 제품안전관리의 제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국은 ‘국민의 안전은 크고, 기업의 규제는 작게,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정착’이라는 비전과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제품안전정책국 각 과를 소개합니다.

먼저 제품안전정책국 주무과인 안전품질정책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품질정책과는 제품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안전정책개발,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R&D사업 추진, 품질경영정책수립·추진, 사전예방적 유통제품 안전관리, 소기자단체 등과의 협력, 국제협력, 예산 등 제품안전정책업무와 품질경영업무를 총괄하고 미래의 안전먹거리를 개척하는 명실공히 제품안전정책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장우환 사무관, 장혁조 연구관, 탁계성 주무관, 류지연 전문위원, 강갑수 과장, 송재빈 국장, 이정임 실무관, 박혜현 시험사, 박성유 연구관, 이원식 연구관, 배진한 연구사)

밝은 미소에 동참력과 예리함까지 겸비하여 과를 무리없이 리드하는 외유내강형 강갑수 과장님, 배사 긍정적이고 차분하고 꼼꼼하신 제품안

전 R&D 전문가 박성유 연구관님, 품질경영과 국제업무 모두 시원시원하게 처리하며 늘 즐겁고 활기찬 이원식 연구관님, 진중한 표정으로 던지는 한마디마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며 일처리 능력이 탁월한 브레인 장혁조 연구관님, 만능 스포츠맨으로 젊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일찍이 4차녀출산 및 사회복지학을 뒤늦게 전공한 정 많은 탁계성 주무관님은 일하실 때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감수성 풍부한 글로 자자고 있던 과원들의 감성을 일깨워주시고 인상 참 좋으신 장우환 사무관님은 저희 과의 시인이십니다. 보고서 잘 쓰고 발표 잘하고 성격 좋고 터털한 배진한 연구사님은 예산도 남당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는 노력과 이지만 먹어도 늘 배고픈 남자로도 통합니다. ㅋㅋ고운 미모만류이나 마음도 예뻐 기표원 최고의 인기쟁이고 과원들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는 쉐스쟁이 이정임 실무관님은 우리 과의 에너지입니다. 단아한 미소천사 박혜현 시험사님은 국장실을 곳곳이 지키며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방긋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일등 신부감이지요. 박병의 지드레곤을 닮아 귀여운 막내 류지연 전문위원은 세네기지만 다부진 업무처리로 직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싱실맨 박기태 행정인턴이 있습니다.

2009년 3월 품질경영 업무가 본부에서 우리원 안전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과명칭이 ‘안전품질정책과’로 바뀌었으며, 업무도 차근차근 정착되고 체계적인 팀워크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안전코리아를 실현하는 안전국 주무과로서 안전한 제품이 유통하고, 제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열정을 다하여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통신제품안전과를 소개합니다.

전기통신제품안전과는 에어컨·청소기·조명기기 등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류 50V~1,000V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전기용품만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차재현 연구관, 하상수 주무관, 이홍우 실무관, 진상언 연구사, 이준수 연구사, 심명현 전문위원, 윤종욱 과장, 윤기환 연구관, 신동희 연구관)

최근 다양한 신개발제품의 보급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합리적인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안전인증제도와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자율안전확인제도는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공장확인과 연1회 이상의 정기심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신고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품 중 안전위험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필요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공장심사 등을 실시하는 안전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불법 전기용품의 유통방지와 단속을 위해 전기제품안전포럼을 설립·운영 중에 있고, 전기용품의 안전관련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FTA/MRA 및 IECEE CMC 등 국제관련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과를 세밀하고 적극적으로면서도 빠른 판단력 및 직원들의 1:1 맞춤 리더십으로 운영하는 윤종욱 과장님, 주무연구관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영 등 주요업무를 통해 우리 과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윤기환 연구관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유머가 넘치는 차재현 연구관님, 자신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신동희 연구관님, 특유의 노련함으로 어렵고 힘든 민원 등의 많은 업무에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이홍우 실무관님, 배려심 많고 맡은바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이준수 연구사님, 오디오/비디오 부문의 최강자 진상언 연구사님, 전기기기 등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상한 친절맨 하상수 주무관님, 영어는 내게 맡겨달라는 심명현 전문위원님!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는 우리나라에 전기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0%"가 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이 공감하고 소비자가 안심하는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

생활제품안전과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품 안전지킴이 ‘생활제품안전과’는 리튬2차전지 폭발 사고, 자석원구로 인한 어린이 전석사고 등의 공산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과는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올 7월부터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의 품목을 조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한편 유아, 아동,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14품목, 자율안전확인대상 47품목, 안전·품질표시대상 30개 품목 등 91개 품목의 안전관리 지정품목과 이 외에 위해우려가 있는 공산품이 모두 우리과의 주요 업무대상입니다. 최근에는 공산품에 대한 석면 안전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휴대용 기기의 배터리 폭발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 리튬2차전지의 안전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 방안마련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뒤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현자 연구관, 김용오 연구관, 박인규 과장, 윤영상 연구사, 고문규 실무관, 지현희 연구원, 서민경 주무관, 유미란 시험사, 김윤근 사무관, 황인택 주무관)

우리 생활제품안전과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미소의 박인규 과장님을 리더로 이현자 연구관님, 김용오 연구관님, 김윤근 사무관님, 윤영상 연구사님, 황인택 주무관님, 서민경 주무관님, 고문규 실무관님, 유미란 시험사님, 그리고 지현희 연구원님으로 구성된 10명의 부족팀입니다.

다정다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린이 용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현자 연구관님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고 계시며, 기술 표준위원의 20년 베테랑이신 김용오 연구관님은 우리과의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또한 꼼꼼하신 김윤근 사무관님은 품질경영 및 공신품 안전관리법령을 운영하여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전업무 4년차 리튬2차전지의 달인 황인택 주무관, 지난 6월 새롭게 합류하여 자동차 안전관리 선진화를 담당하는 윤영상 연구사,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서민경 주무관, 멋진 헤어스타일의 등에 번쩍 서에 번쩍 만능해결사 고문규 실무관님, 낫은일을 묵묵히 해내는 과원의 든든한 조력자 유미란 시험사, 그리고 기상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과의 막내 지현희 연구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제품안전과는 제품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없는 그날까지 불철주야 노력하여 소비자는 안심하고 기업은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제품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계량추정제도과를 소개합니다.

계량추정제도과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KAS(제품인정기구)업무, 실량표시상표 관리제도 선진화, 법정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운영, 법정계량기 기술기준 제·개정, 신산업측정 표준기술개발사업, 계량·측정 분야 국가표준 구축, 국제업무(OIML, BIPM, APLME/IAF)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박용균 연구사, 남하옥 연구관, 유경희 연구관, 소현희 행정인턴, 김익수 과장, 최우석 실무관, 최진경 주무관, 김용득 연구사, 이연범 전문위원, 김민주 사무원)

그럼 계량추정제도과를 이끌어가는 10명의 막강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리스마 김익수과장님,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을 추진하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이시자 백반불짜리 푸근한 미소를 지니신 우리들의 과장님이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포스'의 멋쟁이 김익수과장님,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까지 소유하신 당신은 육신쟁이 우후후~ 만화 캐릭터 페이스의 친근한 남하옥 연구관님, 장난끼 가득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프로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스페셜리스트이자 즐거운 마인드의 소유자!

과의 말언니로서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주시며 뛰어난 능력 덕에 찾는 사람도 많은 '바쁘신 몸'이지만 가끔 영롱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곤 하시는 유성희 연구관님, 과 전반을 두루 살펴주시는 아버지 캐릭터의 박용관 연구사님, 매일매일 발표를 주셔서 얼굴을 보면 저절로 배가 고파지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대구사투리를 친근하게 써주시며 새치 있는 유머감각으로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깜짝 놀랄 동안의 소유자 김용득 연구사님, 인본·연예계 등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최우식 실부관님, 영화배우 한석규 씨인 필요하신분~ 주관하세요 .. 언제나 묵묵히 주어진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이연범 전문위원님, 현재에 절대 만족한다며 독신주의를 당당히 고수하시는 당신은 골드미스(?)..

항상 진지하고 넉치는 승부욕으로 업무를 배우는 소현희 행정인턴, 부지런하며 예쁜얼굴과 마음씨를 가진 막내 사무원 김민주, 그리고 계량을 이끌어가는 배에 얼마 전 새로 승선한 주부관 최진경, 신선한 눈으로 계량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밤늦게까지 KAS 업무 등에 몰두하고 회식 때는 즐겁게 재충전하는 멋진 직원들이기에 CASS 맥주는 곤란합니다. 이렇듯 매력적인 직원들이 환상의 팀웍으로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품안전조사팀을 소개합니다.

국민 생활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제품안전정책국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제품 시판품조사, 안전모니터링, 언론보도모니터링 등 시중에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중 유통현장을 발로 뛰는 소중한 분들이지요..

기술표준원에서 최고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일곱가지 무지개빛깔을 가진 제품안전조사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빨간색의 정열을 닮아 열정적으로 제품안전조사팀을 이끄시는 박정일 팀장님을 중심으로, 활력소가 넘치는 주황색을 닮은 분위기 메이커이자 재물관리 등 팀의 살림을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김성희 실무관님, 노란색 스마일을 연상케하는 미소천사(?) 이치우 행정인턴, 초록빛 남생이 녀굴손처럼 진기용품 뿐 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섭렵하셔서 박식하신 최재본 연구관님, 바람 잘 날 없는 공산품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며 넘쳐나는 민원에도 푸른색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연희남 연구관님, 안전감시원 주부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시며 고요한 남색처럼 안전모니터링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윤윤남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자칭 보랏빛 보석 이수정 시험사까지... 제품안전조사팀의 직원들은 빨,주,노,초,파,남,보 자신만의 빛깔을 내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최재본 연구관, 이수정 시험사, 연희남 연구관, 김성희 실무관, 윤윤남 사무관, 이치우 행정인턴, 박정일 팀장)

대한민국의 안전을 세계 최고로!
제품안전조사팀은 우리나라 제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술표준 2009. 7